

독일 과일 시장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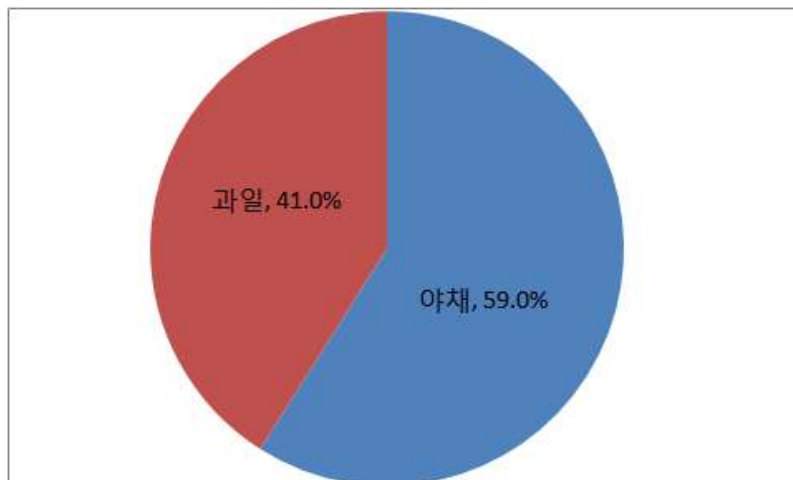
2011. 7

1. 시장개요

■ 시장규모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독일 신선 과일의 시장규모 자료 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자료로는 데이터모니터에서 발간한 통계치가 유일하나 신선 야채 및 과일을 통합하고 있음
- 그러나 야채 및 과일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에 대해서 야채는 59%, 과일은 41%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 독일 신선 야채 및 과일 시장 점유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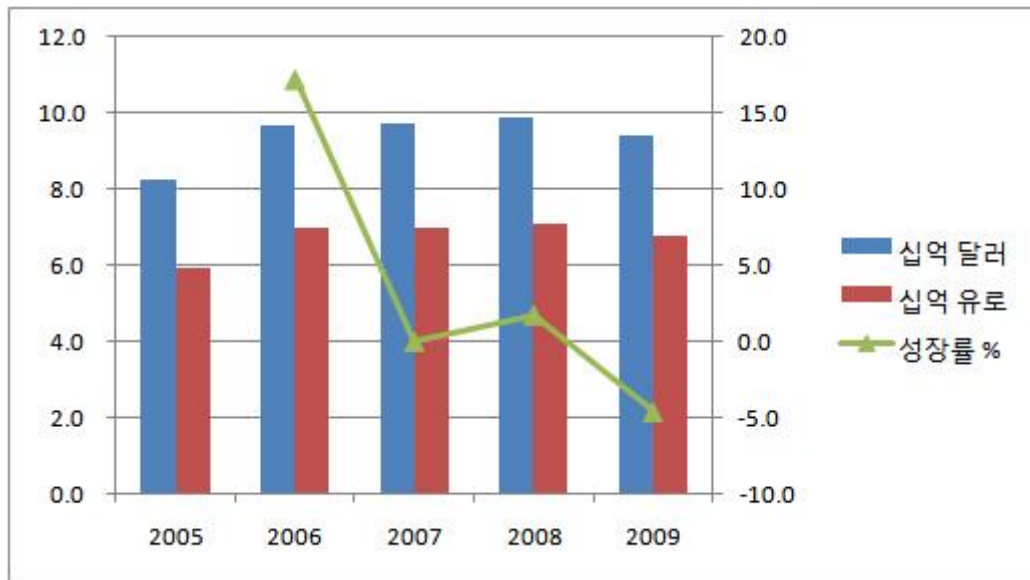


(자료: 데이터 모니터 2010)

-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신선 과일의 시장규모를 추정해 보면, 2009년을 기준으로 94억 달러, 약 10조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05-09년 매출액 기준 신선 과일 시장규모 동향 >

연도	야채 및 과일			과 일		
	십억 달러	십억 유로	성장률 %	십억 달러	십억 유로	성장률 %
2005	20.1	14.5		8.2	5.9	
2006	23.6	17.0	17.1	9.7	7.0	17.2
2007	23.7	17.0	0.4	9.7	7.0	0.0
2008	24.1	17.3	1.6	9.9	7.1	1.8
2009	22.9	16.5	-4.8	9.4	6.8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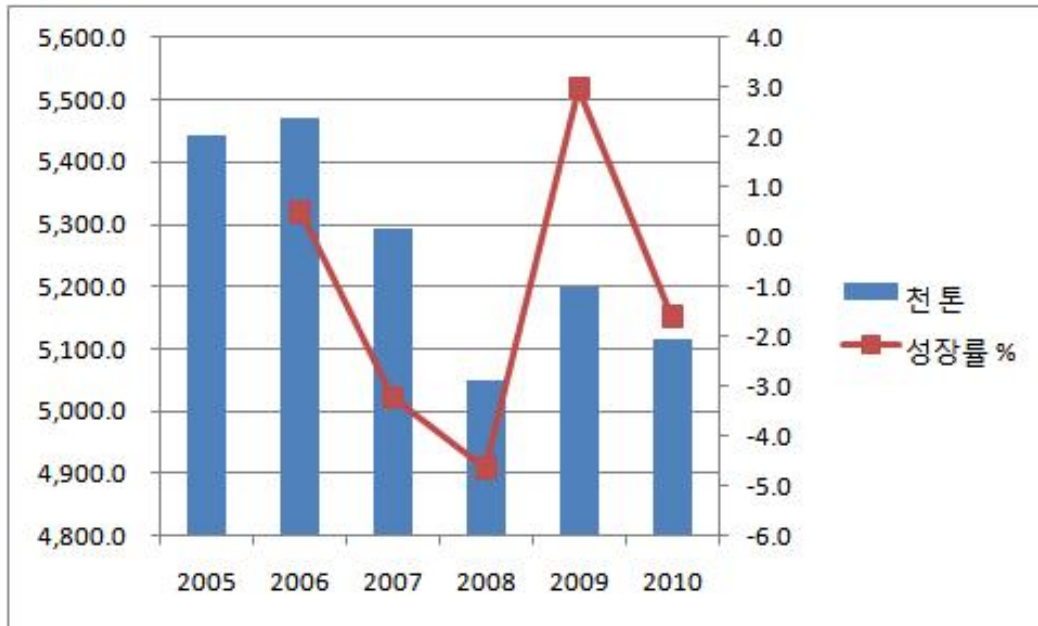
(자료: 데이터 모니터 2010)

-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성장률 자체는 크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2005년 82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99억 달러까지 성장하였으나 2009년에는 4.6%의 상대적으로 큰 감소폭으로 시장이 축소되어 94억 달러를 기록함
- 그러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성장률을 보면 14.6%로 나타나 5년간 전반적으로는 신선 과일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유로모니터에서 발표한 물량을 기준으로 한 신선 과일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 5.1백만 여 톤으로 집계됨 2005년 이후의 시장규모 동향을 살펴보면 2005년-06년에는 0.5% 증가했다가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3.2%, 4.7%가 감소, 2009년에는 3% 증가, 2010년에는 다시 1.6% 감소함

< 2005-10년 물량 기준 신선 과일 시장규모 >

연 도	천 톤	성장률 %
2005	5,444.4	
2006	5,470.9	0.5
2007	5,294.4	-3.2
2008	5,048.2	-4.7
2009	5,198.9	3.0
2010	5,116.1	-1.6

(자료: 유로모니터 2011)



(자료: 유로모니터 2011)

- 이와 같이 신선 과일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디스카운터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독일의 유통구조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과일의 가격이 수요 또는 시장규모의 축소 또는 확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오히려 독일 내 과일 수확량 및 수출입량 등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시장규모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유로모니터는 분석하고 있음

■ 과일 종류별 시장규모

- 독일의 과일 종류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사과가 약 1.4백만 톤으로 월등히 크고, 다음으로 오렌지/탄제린/만다린 0.9백만 톤, 바나나 0.8백만 톤, 기타 과일 0.7백만 톤 순으로 나타남
- 주요 과일의 2005-10년 시장규모 동향을 보면, 시장규모 1위인 사과는 2006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위 오렌지/탄제린/만다린과의 차이가 여전히 약 0.5백만 톤으로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됨
- 사과는 2006년에 최근 6년 중 최대치인 1,451천 톤을 기록한 이후 연간 -4%에서 -1%씩 감소하며 2009년, 최저치인 1,338천 톤을 기록함

- 이후 2010년에는 약 2% 상승한 1,360.4천 톤으로 집계되었으나 2005-10년 전체 성장률은 -4.1%, 연평균 성장률은 -0.8%로 분석됨

< 2005-10년 과일 종류별 시장규모 동향 >

(단위: 천 톤)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사 과	1,419.0	1,450.9	1,411.7	1,397.7	1,338.3	1,360.4
바나나	585.0	880.4	889.0	912.6	828.3	800.7
체 리	107.3	82.4	90.6	82.2	86.1	83.2
크랜베리/블루베리	7.0	7.0	7.0	7.0	7.1	7.2
자몽/포멜로 (pomelo)	45.9	49.5	49.4	46.9	46.7	45.8
포 도	288.8	296.8	255.2	238.4	205.0	235.0
레몬/라임	123.7	123.6	123.5	115.1	114.8	114.4
오렌지/탄제린/만다린	899.3	806.2	798.5	846.8	878.4	894.9
복숭아/승도 복숭아	247.5	271.2	235.5	247.0	283.3	300.7
배/마르멜로 (quinces)	156.3	171.8	205.8	171.3	165.7	167.5
파인애플	92.7	115.8	127.2	139.8	149.2	144.2
플럼/오얏 (plums/sloes)	90.8	84.4	82.3	74.0	65.6	65.4
딸 기	198.0	206.1	197.6	189.1	224.4	217.0
기타 과일	910.2	924.7	821.3	580.3	806.0	679.9
합 계	5,444.4	5,470.9	5,294.4	5,048.2	5,198.9	5,116.1

(자료: 유로모니터)

- 시장규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렌지/탄제린/만다린의 시장규모는 2010년 90만 톤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오렌지/탄제린/만다린의 경우 2005년에 최근 6년 중 최대치인 90만 톤에 달하였으나 그 이후 연속 2년간 감소하며 2007년에 최저치인 80만 톤을 기록함
-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2005년도 기록인 90만 톤을 넘지는 못하고 2005-10년 전체 성장률은 -0.5%를 기록함
- 반면 바나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은 연평균 18%로 증가하여 2005년 59만 톤에서 2008년 91만 톤으로 성장하였으나 경제불황으로 바나나 수요 및 가격이 큰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이 축소, 2010년 80여 만 톤을 기록함

- 전반적으로 시장규모가 상승하고 있는 과일로는 크랜베리/블루베리, 복숭아, 파인애플, 배/마르멜로가 있으며, 반면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과일로는 체리, 기타 과일, 레몬/라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5-10년 과일별 시장 성장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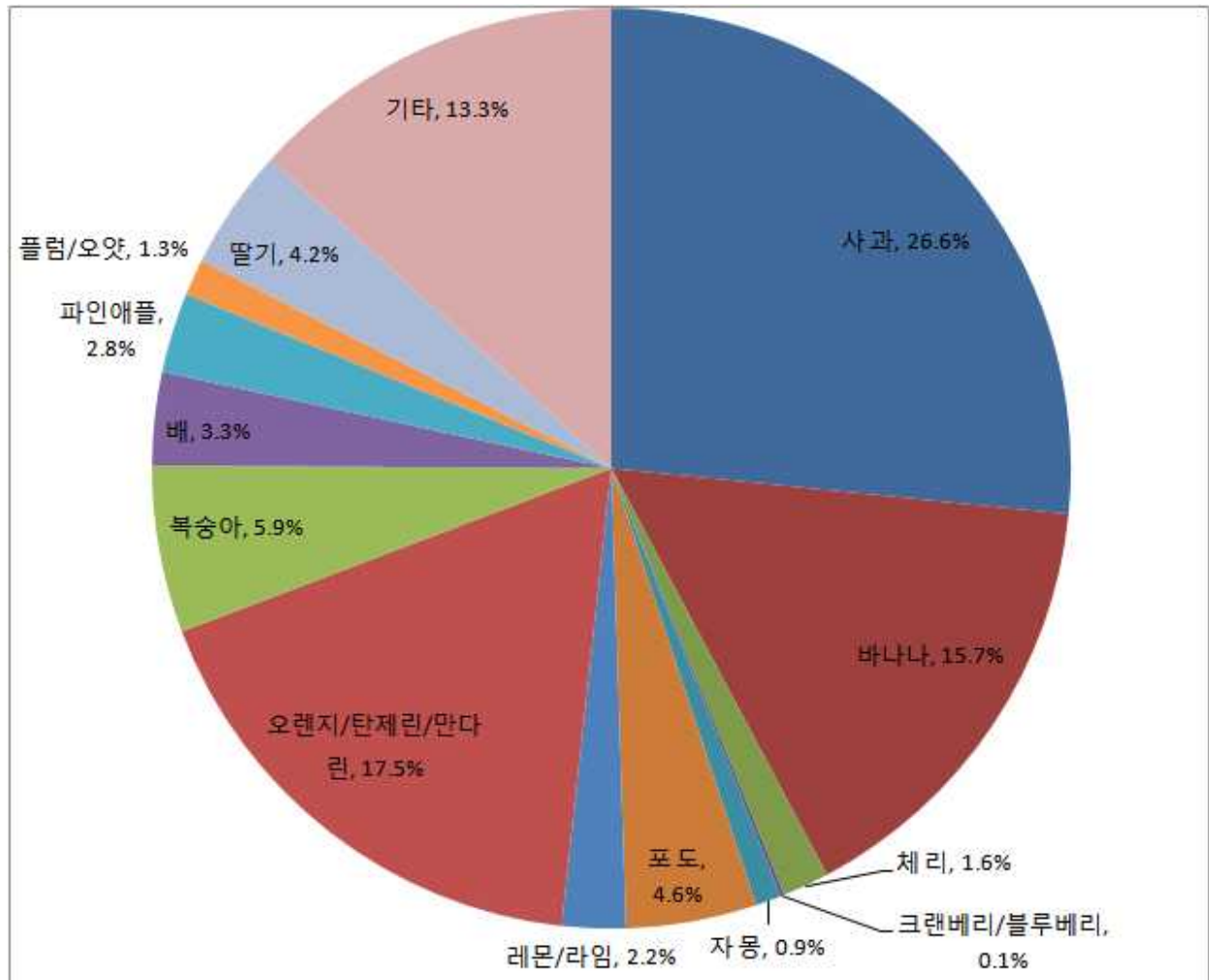
구 분	2009-10년 (%)	2005-10년 (%)
사 과	1.7	-4.1
바나나	-3.3	36.9
체 리	-3.4	-22.5
크랜베리/블루베리	1.4	2.9
자몽/포멜로 (pomelo)	-1.9	-0.2
포 도	14.6	-18.6
레몬/라임	-0.3	-7.5
오렌지/탄제린/만다린	1.9	-0.5
복숭아/승도 복숭아	6.1	21.5
배/마르멜로 (quinces)	1.1	7.2
파인애플	-3.4	55.6
플럼/오얏 (plums/sloes)	-0.3	-28.0
딸 기	-3.3	9.6
기타 과일	-15.6	-25.3

(자료: 유로모니터)

■ 과일별 시장 점유율

- 과일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아래 차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과, 오렌지/탄제린/만다린, 그리고 바나나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26.6%, 17.5%, 15.7%로 10% 이상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복숭아 (5.9%), 포도 (4.6%), 딸기 (4.2%), 배 (3.3%)도 시장 점유율이 3%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나타냄
- 시장 규모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던 크랜베리와 블루베리의 시장 점유율은 아직 0.1%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2005-10년 과일 시장 점유율 >



(자료: 유로모니터 2011)

2.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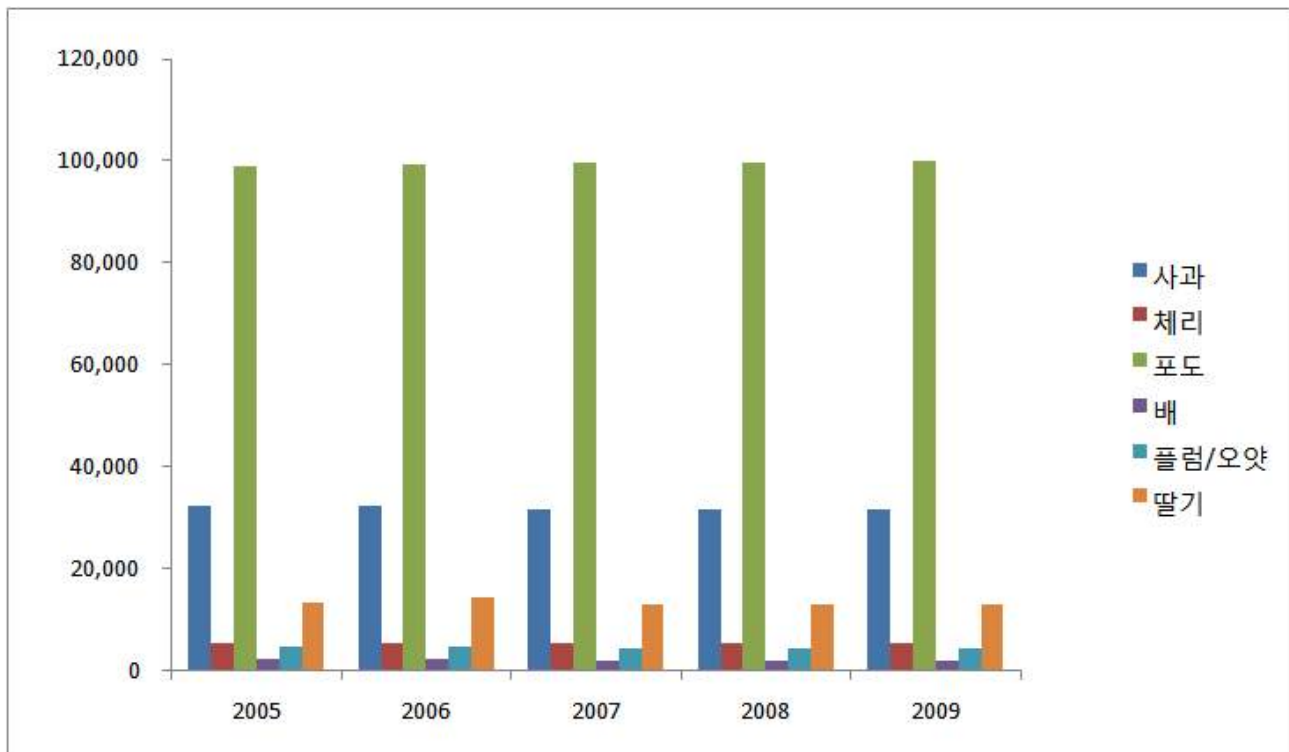
■ 생산면적

- FAO에서 2011년 5월에 발표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독일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사과, 체리, 포도, 배, 플럼/오얏, 딸기 총 6개 과일의 2009년 생산면적을 살펴보면 포도 재배면적이 10만 헥타르 이상으로 가장 넓고 사과 32,000 헥타르, 딸기 13,000 헥타르, 체리 5,400 헥타르, 플럼/오얏 4,500 헥타르, 배 2,000 헥타르 순으로 나타남
- 가장 생산면적이 넓은 포도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매출액 기준 시장규모 및 시장 점유율에서는 그리고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면적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인 사과보다 3배 이상 넓게 나타남
- 이와 같은 현상은 독일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대부분이 일반 신선 과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와인 제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따른 결과로 해석됨
- 또한 앞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던 바나나, 오렌지/탄제린/만다린의 생산면적은 FAO 통계에 집계되지 않아 전량 수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생산면적 동향을 보면, 포도가 유일하게 2005년 이후 생산면적이 연평균 0.24%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년간 총 1.2%가 증가함
- 그러나 포도를 제외한 사과, 체리, 플럼/오얏, 딸기 모두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여 2005-09년에 생산면적이 각각 1.6%, 1.6%, 0.6%, 3.4%가 감소함
- 배의 경우 해마다 소폭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이 역시 2005-09년 전체적으로는 생산면적이 4.4% 감소함

< 2005-09년 과일 종류별 생산면적 동향 >

(단위: 헥타르, %)

품목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08-09 성장률	2005-09 성장률
사과	32,339	32,504	31,721	31,800	31,813	0.0	-1.6
체리	5,528	5,561	5,443	5,449	5,440	-0.2	-1.6
포도	98,875	99,172	99,702	99,700	100,101	0.4	1.2
배	2,189	2,226	2,097	2,090	2,093	0.1	-4.4
플럼 / 오얏	4,562	4,590	4,533	4,539	4,534	-0.1	-0.6
딸기	13,435	14,214	13,013	13,032	12,978	-0.4	-3.4



(자료: FAO 식품농업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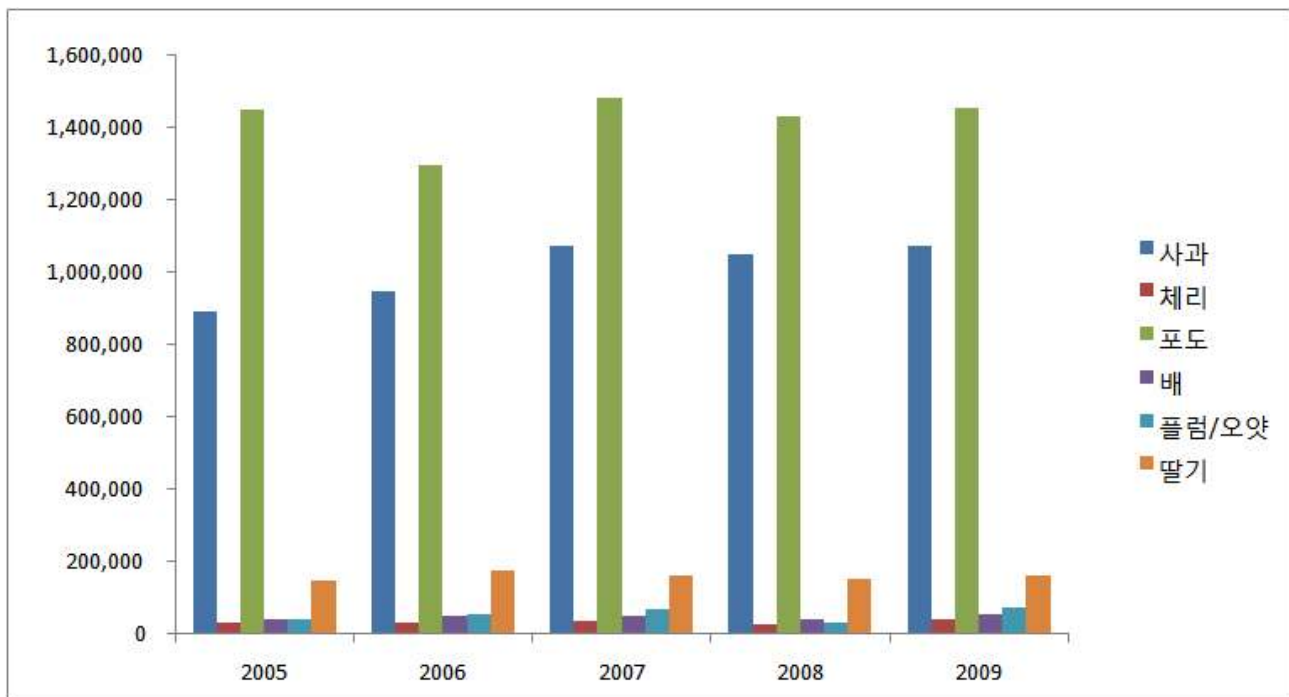
■ 생산량

- 독일의 과일 생산면적은 포도를 제외하고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생산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05-09년 과일 종류별 생산량 >

(단위: 톤, %)

품목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08-09 성장률	2005-09 성장률
사과	891,402	947,611	1,070,040	1,047,000	1,070,680	2.3	20.1
체리	27,911	31,637	34,452	25,166	39,463	56.8	41.4
포도	1,449,000	1,294,710	1,480,680	1,428,780	1,456,000	1.9	0.5
배	38,259	48,586	49,918	38,076	52,319	37.4	36.7
플럼/오얏	40,114	51,523	65,290	31,363	73,102	133.1	82.2
딸기	146,500	173,230	158,658	150,854	158,563	5.1	8.2



(자료: FAO 식품농업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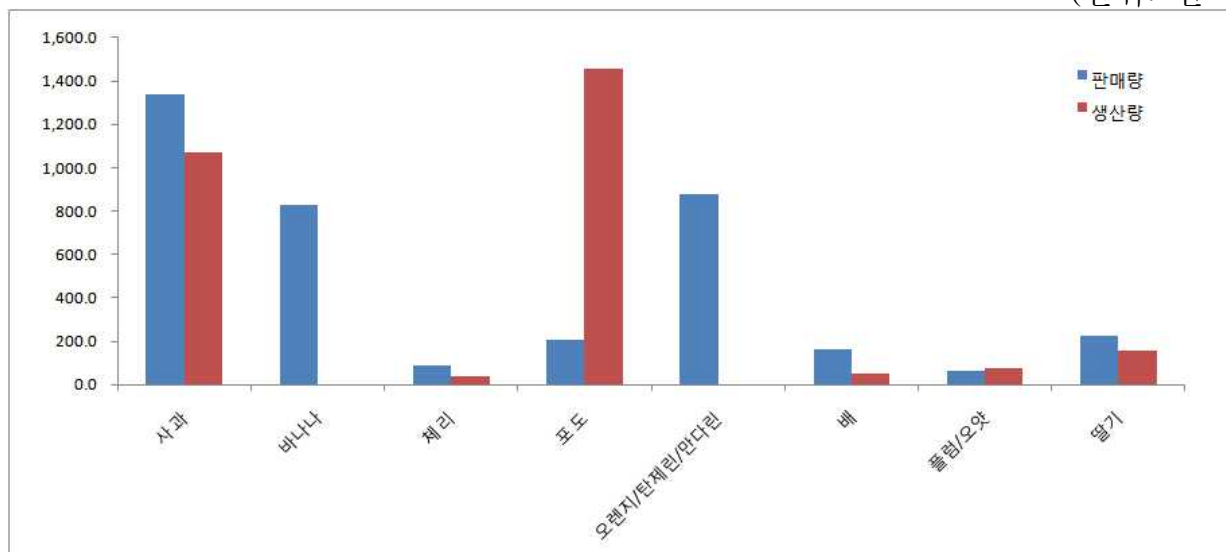
-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일인 사과는 2005년 이후 연평균 4% 가량씩 매년 증가하여 2005년에는 90만 톤에 조금 못 미치는 양을 생산하였으나 2009년에는 107백만여 톤에 달하면서 20.1%의 성장률을 기록함
- 가장 생산량이 많이 증가한 과일은 플럼/오얏으로, 2005년 이후 5년간 무려 82.2%가 증가,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독일산 플럼/오얏은 2005년 4만여 톤에서 2009년 7만 3천여 톤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크게 증가함
- 반면, 주로 와인 제조용으로 재배되고 있는 포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생산량 증가률을 나타내고 있는 과일은 딸기로, 2005년 이후 생산량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5년 동안 생산량은 8.2%가 증가함
- 독일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신선 과일은 사과이며, 다음으로 딸기, 플럼/오얏, 배, 체리 순으로 나타남

■ 생산량 대비 판매량

- 2009년 과일 종류별 생산량과 판매량을 살펴 보면 바나나, 오렌지/탄제린/만다린은 독일 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아 판매량 전부 수입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가장 판매량이 많은 사과와 딸기는 자급 조달률이 각각 80%, 70.7%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체리와 배는 50% 미만으로 자급 조달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과일별 생산량 및 판매량 비교 >

(단위: 천 톤)



(자료: FAO 식품농업기구 및 유로모니터 자료 재편집)

< 2009년 과일별 자급 조달률 >

(단위: 천 톤, %)

품목명	생산량	판매량	자급 조달률
사과	1,070.7	1,338.3	80.0
바나나	0.0	828.3	0.0
체리	39.5	86.1	45.9
포도	1,456.0	205.0	710.2
오렌지/탄제린/만다린	0.0	878.4	0.0
배	52.3	165.7	31.6
플럼/오얏	73.1	65.6	111.4
딸기	158.6	224.4	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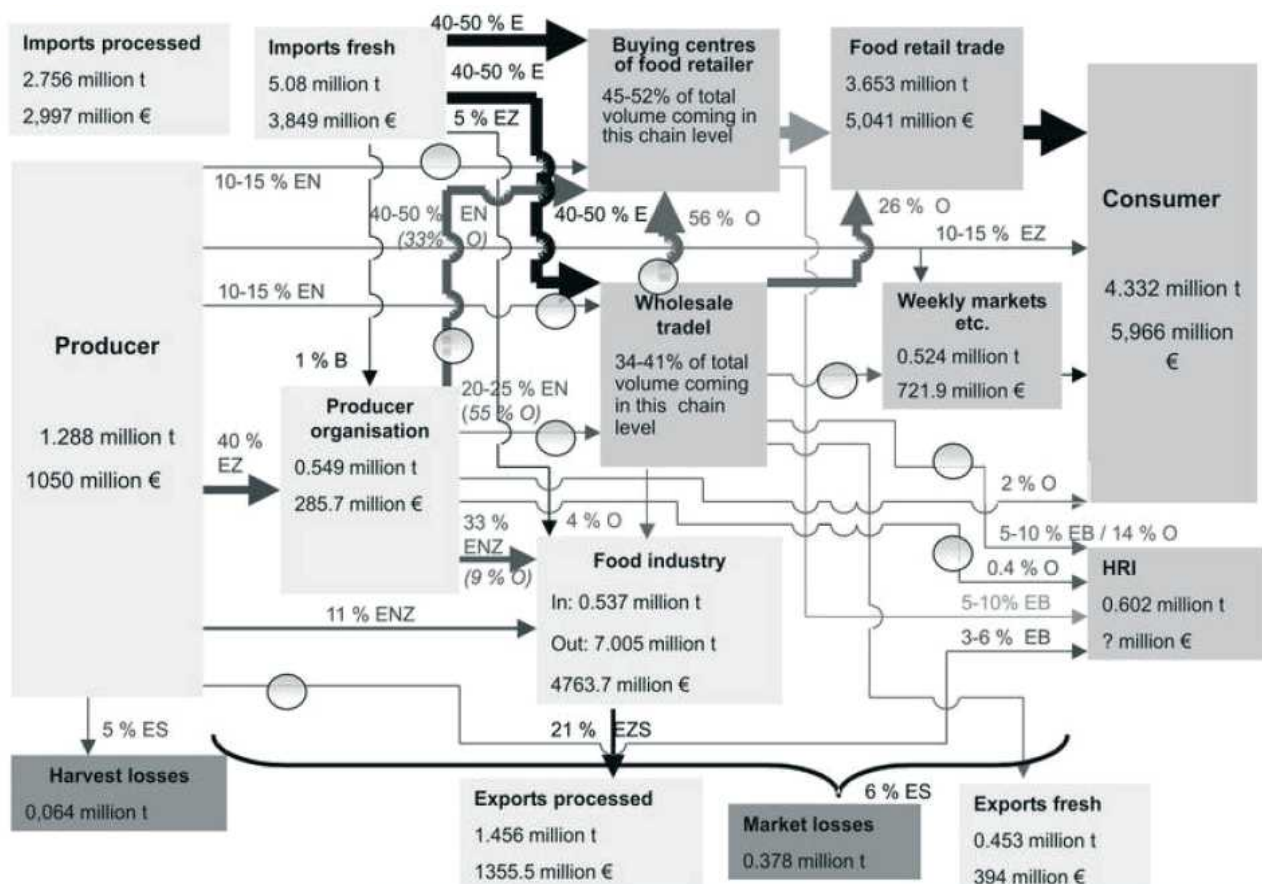
(자료: FAO 식품농업기구 및 유로모니터 자료 재편집)

3. 유통동향

■ 과일 유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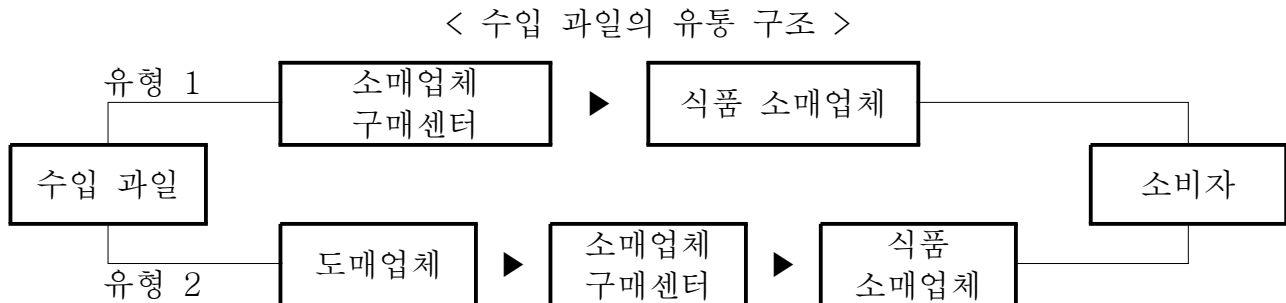
- 유럽 연합의 MEDFROL Project의 일환으로 Volker Hart, Aikaterini Kavallari, Michael Schmitz 그리고 Tobias C. Wronka가 진행한 ‘독일의 신선 과일 및 야채 유통구조 분석 연구 (Supply Chain Analysis of Fresh Fruit and Vegetables in Germany)’에서 정리한 독일의 과일 유통구조 체계는 크게 수입 과일과 독일 국내산 과일로 구분할 수 있음
- 수입 과일의 경우, 수입 후 주로 식품 소매업체들의 구매 센터 (45-52%) 또는 도매업체 (34-41%)로 유통되고, 소수의 양이 식품 제조업체 (4%) 또는 생산자 조직 (1%)로 유통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독일 신선 과일 유통구조도 >



(자료: MEDFROL Project, 2007)

- 수입 과일의 유통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소매업체 구매센터 및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유통 구조를 정리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 반면, 독일 내 생산된 과일의 유통체계는 보다 복잡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생산자 조직, 소매업체 구매센터, 도매업체, 식품 소매업체, 식품 제조업체, 주말 마켓 등의 유통 과정에 관련되어 있으며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사이에 몇 단계의 거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유통업체 유형별 과일 판매비율

- 유로모니터에서는 독일의 과일 판매 유통유형을 크게 소매업체와 식품 서비스 업체와 같은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함
- 그 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소매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비율은 85.8%, 기타는 14.2%로 나타남
- 소매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과일의 비율은 2005년 84.6%에서 지속적으로 연간 0.1-0.4%씩 증가하여 2010년에 85.8%에 달함으로써 6년간 1.2%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독일 내 과일 유통비율 ＞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소매업체	84.6	85.0	85.3	85.5	85.7	85.8
기 타	15.4	15.0	14.7	14.5	14.3	14.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유로모니터 2011)

- 이와 같은 소매업체의 비율 증가는 디스카운터 업체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 2010년 디스카운터 업체 중 하나인 페니 (Penny)는 독일 국민의 과일 섭취량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반 슈퍼마켓의 평균 과일 가격보다 23%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과일 판매촉진 마케팅을 실시함
- 이와 같은 가격 덤핑 캠페인은 가격에 민감한 독일 소비자들에게 효과를 발휘하여 과일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와 같은 디스카운터 업체들의 저가 공략과 이들 업체들의 과일 시장 장악으로 인하여 과일 공급업체들의 과일 시장 내 파워는 매우 약한 것으로 데이터모니터는 평가하고 있음

■ 독일 유통업체의 과일 판매형태

구 분	이미지	특 징
포 도		- 500g 2.79유로 - PET 용기 또는 지퍼백에 500g 등 특정 중량씩 담아서 판매 - 일반 슈퍼마켓에서는 주로 씨없는 포도 판매
딸 기		- 딸기는 과일 판매 바구니 (punnet)에 일정 분량씩 담아 판매 - 대체적으로 한 박스에 12개 딸기 바구니를 담은 형태로 유통되고 있음 - 딸기 바구니를 비닐에 넣어 포장을 하기도 하고 그림과 같이 바구니에 담은 상태로만 판매하기도 함

사 과		- 많은 슈퍼마켓에서 사과를 낱개로 판매하고 있음 -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과들이 서로 눌리지 않도록 1단으로만 담고 있음 - 또한 운반과정에서 흔들림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상자 바닥에 흠이 파여져 있는 종이 틀을 넣어 포장하고 있음 - 과일마다 브랜드 또는 원산지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기도 함
배		- 배도 사과와 마찬가지로 낱개판매하고 있음 -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배들이 서로 눌리지 않도록 1단으로만 담고 있음 - 또한 운반과정에서 흔들림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상자 바닥에 흠이 파여져 있는 종이 틀을 넣어 포장하고 있음 - 과일마다 브랜드 또는 원산지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기도 함

(자료: 직접조사)

4. 수입동향

■ 전체 수입규모 동향

- 독일이 연간 수입하고 있는 과일의 규모는 금액으로는 76억 달러, 한화 약 8조 원, 물량으로는 5.5백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각각 1.3%, 4.3%가 감소한 수치임

< 2008-10년 상위 20개국 및 한국산 과일 수입규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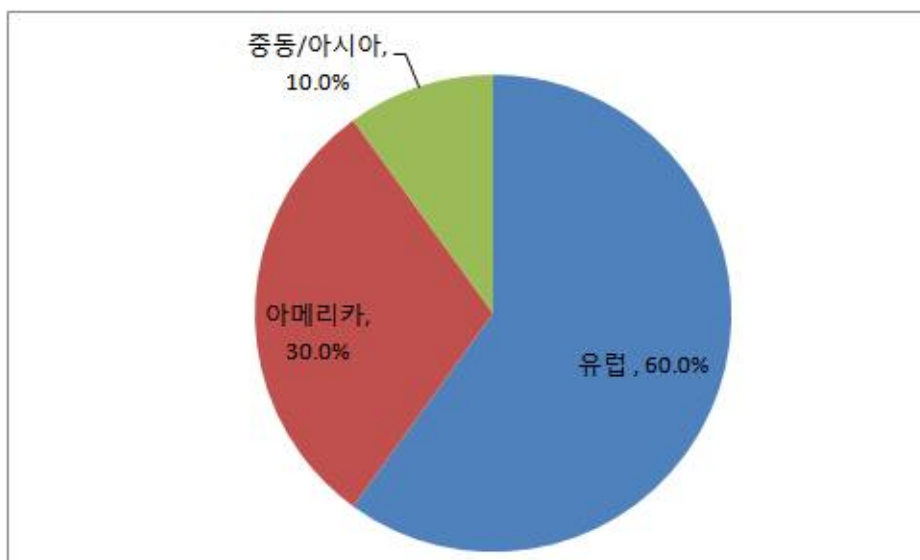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천 kg, %)

국가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09-10년 성장률		2008-10년 성장률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전 체	8,876,242	5,847,536	7,715,923	5,751,434	7,612,034	5,501,463	-1.3	-4.3	-14.2	-5.9
스페인	1,592,691	1,251,606	1,533,417	1,344,995	1,547,718	1,327,090	0.9	-1.3	-2.8	6.0
네덜란드	1,484,895	866,091	1,345,059	846,048	1,272,066	780,470	-5.4	-7.8	-14.3	-9.9
이탈리아	1,314,615	850,939	1,013,744	821,366	1,013,709	805,603	0.0	-1.9	-22.9	-5.3
벨기에	811,533	573,413	788,151	607,637	648,552	517,063	-17.7	-14.9	-20.1	-9.8
터 키	428,392	99,877	356,328	106,479	435,726	109,305	22.3	2.7	1.7	9.4
미 국	377,604	99,309	319,141	91,224	350,845	91,498	9.9	0.3	-7.1	-7.9
프랑스	424,699	220,719	356,126	211,338	306,597	198,483	-13.9	-6.1	-27.8	-10.1
그리스	217,104	140,272	166,309	127,698	168,210	143,494	1.1	12.4	-22.5	2.3
폴란드	230,967	146,351	164,405	135,983	158,095	122,456	-3.8	-9.9	-31.6	-16.3
오스트리아	167,711	99,635	150,795	96,454	157,558	101,304	4.5	5.0	-6.1	1.7
룩셈부르크	135,194	19,447	139,292	18,477	137,808	20,195	-1.1	9.3	1.9	3.8
이 란	136,521	23,727	103,798	14,887	131,252	20,060	26.4	34.7	-3.9	-15.5
에콰도르	232,837	356,673	191,276	337,537	127,896	246,607	-33.1	-26.9	-45.1	-30.9
콜롬비아	159,704	261,326	150,587	262,086	127,188	226,643	-15.5	-13.5	-20.4	-13.3
코스타리카	125,137	182,314	96,795	151,255	110,278	185,606	13.9	22.7	-11.9	1.8
중 국	106,561	48,987	82,471	41,363	89,802	42,659	8.9	3.1	-15.7	-12.9
세르비아	85,517	41,225	89,111	53,246	80,575	55,137	-9.6	3.6	-5.8	33.7
칠 레	86,583	27,545	56,818	22,843	64,813	21,769	14.1	-4.7	-25.1	-21.0
영 국	50,129	18,222	47,140	20,538	59,726	34,550	26.7	68.2	19.1	89.6
파나마	146,234	195,762	72,147	125,510	58,693	121,881	-18.6	-2.9	-59.9	-37.7
한 국	124	64	110	50	198	110	80.0	120.0	59.7	71.9

(자료: GTA)

- 독일이 가장 많이 과일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순으로, 이 3개 국가에서 수입된 과일이 전체 수입규모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5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됨
- 스페인으로부터의 수입규모가 가장 큰 것은, 독일에서 가장 인기 많은 과일 중 하나이면서 독일 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는 오렌지/탄제린/만다린을 중심으로 한 감귤류 제품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 국가별 수입규모 동향을 살펴보면 수입규모 상위 3개국 중에서는 스페인을 제외한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는 전반적으로 3년 연속 수입액과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네덜란드의 경우, 2008년 수입물량이 87만 톤에 달하였으나 다음 해에는 85만 톤으로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80만 톤에 못 미치는 78만 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상위 20개국 중에서 최근 3년간 수입규모가 증가한 국가로는 터키, 룩셈부르크, 영국이 있으며, 반대로 수입규모가 10% 이상 감소한 국가로는 벨기에, 프랑스, 폴란드, 에콰도르, 콜롬비아, 중국, 칠레, 파나마가 있음
- 수입규모 상위 20개국을 세계 지역별로 나누어 비율을 분석해 보면, 과반수가 넘는 수입 과일의 60%가 인근 유럽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30%는 미국,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등과 같은 아메리카, 그리고 10%만이 중동/아시아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10년 독일의 세계 지역별 과일 수입비율 >



(자료: GTA)

■ 아시아 제품 수입규모 동향

-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 독일로 수입되는 과일이 전체 과일 수입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 중국만이 유일하게 수입규모 약 9천만 달러, 4만 톤 이상으로 상위 20개국 안에 속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입규모 순위를 보면, 중국이 가장 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한국 순으로 조사됨
-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은 주로 망고, 파인애플 등의 열대과일을 독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최근 3년간의 수입규모 동향을 보면, 중국의 경우 2009-10년에는 수입액과 수입량이 각각 8.9%, 3.1%를 기록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8년 대비로는 15.7%, 12.9%가 감소함
- 2위 베트남은 수입액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수입량은 오히려 감소하여 단위당 수입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 태국은 전반적으로 수입액과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8년 수입액 8백만 달러, 수입량 2천 톤에서 2009년에는 7.7백만 달러, 1천 8백 톤으로 소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0년에는 수입액과 수입량이 각각 16.2%와 20.2%가 증가한 9백만 달러, 2천 2백 톤을 기록함

< 2008-10년 주요 아시아 과일 수입규모 동향>

(단위: 천 달러, 천 kg, %)

국가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09-10년 성장률		2008-10년 성장률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전 체	8,876,242	5,847,536	7,715,923	5,751,434	7,612,034	5,501,463	-1.3	-4.3	-14.2	-5.9
중 국	106,561	48,987	82,471	41,363	89,802	42,659	8.9	3.1	-15.7	-12.9
베트남	17,611	4,867	15,592	4,030	19,178	4,016	23.0	-0.3	8.9	-17.5
인도네시아	9,465	5,066	7,839	5,027	9,417	5,494	20.1	9.3	-0.5	8.4
태 국	7,919	2,087	7,668	1,828	8,907	2,198	16.2	20.2	12.5	5.3
필리핀	11,776	6,294	9,516	7,306	6,597	4,849	-30.7	-33.6	-44.0	-23.0
한 국	124	64	110	50	198	110	80.0	120.0	59.7	71.9
싱가폴	198	59	387	306	161	66	-58.4	-78.4	-18.7	11.9

(자료: GTA)

품목별 수입동향

- 품목별 수입동향을 통해 독일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과일을 살펴보면,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독일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은 바나나와 감귤류가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10년, 바나나는 1.2백만 톤이 수입되었으며 감귤류 역시 1백만 톤이 조금 넘는 1,079,973 톤이 수입됨
- 바나나와 감귤류 외에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앞에서 독일에서 가장 소비량이 많은 과일로 조사된 사과로, 연간 77만 톤이 수입됨

< 2008-10년 과일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천 kg, %)

HS 코드 및 품목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09-10년 성장률	
	수입 금액	수입 물량	수입 금액	수입 물량	수입 금액	수입 물량	수입 금액	수입 물량
0801 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	159,785	42,974	188,256	45,971	200,160	48,422	6.3	5.3
0802 신선 또는 건조 기타 견과류	1,315,820	221,789	1,216,315	220,367	1,317,326	218,500	8.3	-0.8
0803 신선 또는 건조 바나나	1,113,356	1,407,531	993,528	1,330,621	876,922	1,235,823	-11.7	-7.1
0804 신선 또는 건조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바, 망고	424,408	284,200	401,648	291,312	402,805	281,935	0.3	-3.2
0805 신선 또는 건조 감귤류	1,191,745	1,137,511	1,157,264	1,173,865	1,077,429	1,079,973	-6.9	-8.0
0806 신선 또는 건조 포도	904,630	446,613	735,707	392,924	722,365	356,487	-1.8	-9.3
0807 신선 멜론(수박 포함) 및 파파야	314,640	357,072	265,420	342,508	290,752	406,132	9.5	18.6
0808 신선 사과 및 배	996,939	832,481	777,237	850,929	751,694	770,068	-3.3	-9.5
0809 신선 살구, 체리, 복숭아, 자두	825,080	441,116	603,515	429,906	613,855	409,111	1.7	-4.8
0810 기타 신선 과일	782,033	307,157	688,350	325,215	661,493	307,735	-3.9	-5.4
0811 조리 또는 비조리 냉동 과일 및 견과류	637,647	309,652	508,514	300,289	515,791	336,118	1.4	11.9
0812 즉시 섭취 가능한 보존된 과일 및 견과류	2,187	1,068	2,266	1,588	3,057	2,229	34.9	40.4
0813 과일 및 견과류 혼합	202,813	56,036	172,729	43,121	173,369	46,195	0.4	7.1
0814 신선, 냉동, 건조 또는 보존된 감귤류 또는 멜론 껍질	5,161	2,335	5,172	2,818	5,016	2,734	-3.0	-3.0

(자료: GTA)

- 사과와 배의 경우, 독일 내 생산량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반적인 간식 또는 디저트로서의 섭취 외에도 사과 사이드 제조와 같은 관련 식품 원료로서의 소비량도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품목별 수입규모를 살펴보면, 신선 또는 건조 견과류가 13억 달러치가 수입되어 1위로 나타났으며, 감귤류도 견과류와 함께 10억 달러 이상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됨
- 또한 5억 달러 규모 이상으로 수입된 과일로는 바나나 (8.7억 달러), 사과/배 (7.5억 달러), 포도 (7.2억 달러), 기타 신선과일 (6.6억 달러), 살구/체리/복숭아/자두 (6.1억 달러), 그리고 조리 또는 비조리 냉동과일 및 견과류 (5.2억 달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최근 3년간의 수입규모 동향을 보면, 바나나, 감귤류, 사과 및 배 등 주로 소비량이 많은 과일을 중심으로 수입규모가 감소한 반면, 즉시 섭취 가능한 보존된 과일 및 견과류와 같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과일 제품들과 견과류 제품들의 수입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바나나의 경우, 최근 3년 연속 수입규모가 감소하여 2008년에는 수입액과 수입량이 각각 11억 달러, 1.4백만 톤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10억 달러, 1.3백만 톤, 2010년에는 8.8억 달러, 1.2백만 톤으로 감소함
- 또한 사과 및 배도 2008년에 10억 달러, 83만 톤에서 2009년에 7.8억 달러, 85만 톤, 그리고 2010년에 7.5억 달러, 77만 톤으로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은 2008년 1.6억 달러, 4.3만 톤에서 2009년 1.9억 달러, 4.6만 톤, 2010년 2.0억 달러, 4.8만 톤으로,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은 25%, 수입물량은 13%가 증가함
- 또한 즉시 섭취 가능한 보존된 과일 및 견과류는 2008년 2.2백만 달러, 1천여 톤에서 2009년 2.3백만 달러, 1.6천 톤으로, 2010년에는 3백만 달러, 2.3천 톤을, 수입금액 34.9%, 수입물량 40.4%를 기록함

■ 품목별 국가별 수입동향

- 2010년 한국은 독일을 대상으로 총 약 20만 달러, 110 톤 규모의 과일을 수출함
- 이중 90% 이상이 사과/배로 조사되었으며 소량의 신선 또는 건조 기타 견과류, 기타 신선과일, 과일 및 견과류가 독일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한국산 과일의 품목별 수입비율 >

품목명	수입액	수입물량
0802 신선 또는 건조 기타 견과류	5.1%	1.8%
0808 신선 사과 및 배	91.4%	95.5%
0810 기타 신선 과일	3.0%	2.7%
0813 과일 및 견과류 혼합	0.5%	0.0%
합 계	100.0%	100.0%

(자료: GTA)

- 따라서 한국산 과일 중 독일로 수입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규모 상위 3개국의 수입동향을 조사함
- 한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신선 사과 및 배의 경우, 이탈리아로부터 가장 많은 연간 32만 톤이 수입되고 있으며, 네덜란드 19만 톤, 그리고 프랑스 6만 6천 톤으로 집계됨
- 한국산 신선 사과 및 배의 수입단가를 이 3개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산의 가격은 수입단가가 가장 높은 이탈리아의 1.11달러보다 0.60달러가 높은 1.71달러로 나타났다으며 3개국 평균인 1.19달러보다도 0.52달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현재 한국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유럽산 제품들과 비교하여 뒤처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기타 견과류의 경우, 미국, 터키, 룩셈부르크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 3개국에서 수입되는 물량은 2010년 미국 6.8만 톤, 터키 4.0만 톤, 룩셈부르크 2.0만 톤이며 한국에서는 2톤이 수입됨
- 수입 단가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5.00달러로 단가가 가장 낮은 미국보다는 0.63달러가 높으나 터키와 룩셈부르크보다는 각각 1.79달러, 2.12달러가 낮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남

< 2008-10년 품목별 국가별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천 kg)

품목명	국가명	2008년		2009년		2010년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단가
0802 신선 또는 건조 기타 견과류	미 국	305,190	65,782	255,838	65,963	297,624	68,147	4.37
	터 키	277,525	40,010	205,669	34,047	268,418	39,505	6.79
	룩셈부르크	127,318	17,337	139,130	18,403	135,863	19,074	7.12
	한 국	1	0	5	1	10	2	5.00
0808 신선 사과 및 배	이탈리아	407,516	307,495	327,762	334,756	351,972	317,528	1.11
	네덜란드	267,894	222,689	205,991	223,420	179,506	189,474	0.95
	프랑스	94,592	76,195	67,050	62,725	64,799	65,553	0.99
	한 국	116	63	98	47	180	105	1.71
0810 기타 신선 과일	스페인	223,435	76,843	224,879	92,434	223,237	92,706	2.41
	네덜란드	125,042	38,384	124,512	43,992	132,298	41,885	3.16
	이탈리아	162,091	75,276	120,086	79,861	116,289	78,134	1.49
	한 국	0	0	2	0	6	3	2.00
0813 과일 및 견과류 혼합	터 키	34,769	10,130	33,959	11,102	38,409	10,762	3.57
	칠 레	30,249	7,732	18,892	5,461	23,353	7,188	3.25
	미 국	28,292	6,612	32,384	6,859	23,256	6,934	3.35
	한 국	4	0	3	1	1	0	0

(자료: GTA)

■ 수입가격 비교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입과일 가격의 변화를 보면 2008년에 1.52달러로 가장 높았다가 다음해 1.34달러로 다소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에 소폭 상승, 1.38달러를 기록함
- 국가별로 과일 수입가격을 보면, 룩셈부르크와 이란의 수입가격이 각각 6.82달러, 6.54달러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요 과일 품목이 견과류라는 것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는 0.6달러가 채 되지 않는 0.5달러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이들 국가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는 바나나의 수입단가가 다른 과일에 비해서 낮기 때문으로 사료됨

< 2008-10년 국가별 과일 수입가격 동향>

(단위: 달러)

국가명	2008년	2009년	2010년
전 체	1.52	1.34	1.38
스페인	1.27	1.14	1.17
네덜란드	1.71	1.59	1.63
이탈리아	1.54	1.23	1.26
벨기에	1.42	1.30	1.25
터 키	4.29	3.35	3.99
미 국	3.80	3.50	3.83
프랑스	1.92	1.69	1.54
그리스	1.55	1.30	1.17
폴란드	1.58	1.21	1.29
오스트리아	1.68	1.56	1.56
룩셈부르크	6.95	7.54	6.82
이 란	5.75	6.97	6.54
에콰도르	0.65	0.57	0.52
콜롬비아	0.61	0.57	0.56
코스타리카	0.69	0.64	0.59
중 국	2.18	1.99	2.11
세르비아	2.07	1.67	1.46
칠 레	3.14	2.49	2.98
영 국	2.75	2.30	1.73
파나마	0.75	0.57	0.48
한 국	1.94	2.20	1.80

(자료: GTA)

- 과일 품목별로 수입가격을 비교해 보면, 기타 견과류가 6.03달러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 4.13달러, 과일 및 견과류 혼합 3.75달러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바나나와 신선 멜론 및 파파야는 각각 0.71달러와 0.72달러로 수입가격이 가장 낮은 품목으로 조사되었으며 사과 및 배, 감귤류도 1.0달러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수입가격이 낮은 품목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 한국산 수입가격과 전체 수입가격을 비교해 보면, 기타 견과류는 한국산이 전체 수입가격보다 1.0달러가량 낮고, 사과 및 배는 0.73달러 높고, 기타 신선 과일은 0.15달러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2008-10년 과일 품목별 수입가격 동향>

(단위: 달러)

HS Code 및 품목명	2008년	2009년	2010년
0801 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	3.72	4.10	4.13
0802 신선 또는 건조 기타 견과류	5.93	5.52	6.03
0803 신선 또는 건조 바나나	0.79	0.75	0.71
0804 신선 또는 건조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바, 망고	1.49	1.38	1.43
0805 신선 또는 건조 감귤류	1.05	0.99	1.00
0806 신선 또는 건조 포도	2.03	1.87	2.03
0807 신선 멜론 (수박 포함) 및 파파야	0.88	0.77	0.72
0808 신선 사과 및 배	1.20	0.91	0.98
0809 신선 살구, 체리, 복숭아, 자두	1.87	1.40	1.50
0810 기타 신선 과일	2.55	2.12	2.15
0811 조리 또는 비조리 냉동 과일 및 견과류	2.06	1.69	1.53
0812 즉시 섭취 가능한 보존된 과일 및 견과류	2.05	1.43	1.37
0813 과일 및 견과류 혼합	3.62	4.01	3.75
0814 신선, 냉동, 건조 또는 보존된 감귤류 또는 멜론 껍질	2.21	1.84	1.83
평 균	2.25	2.06	2.08

(자료: GTA)

5. 관련 규정 및 수입검사

■ 독일 수입과정 중 문제 사례분석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유럽 내 과일제품의 통관거부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독일로의 과일 수입과정에서 중요한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고자 함
- 3년간 유럽 긴급 경고 시스템 RASFF에 통관이 거부된 것으로 등록된 과일 제품 사례는 총 547건으로, Aflatoxin과 Ochratoxin과 같은 독소의 검출이 224건으로 거의 절반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 다음으로는 농약검출과 중금속 검출로 인한 통관거부가 각각 86건과 74건으로 50건 이상, 곰팡이 발생 (38건), 곤충발견 (33건), 제품 부패 (32건) 순으로 통관 거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8-10년 과일제품 통관거부 유형 및 건수 >

통관거부 유형	적발건수	비 고
독소 검출	224	Aflatoxin (199), Ochratoxin (19), Salmonella (6)
중금속 검출	74	tin, cadmium, sulphur
농약 검출	66	Methomyl (22), Cyprodinil, Fludioxinil, diazinon (12), methiocarb, ethion (6), omethoate & dimethoate (20), bromopropylate, imazalil, actamiprid
곰팡이 발생	38	
곤충발견	33	
제품 부패	32	
관능학적 특성변형	16	
위생상태 불량	16	
보관상태 불량	11	
불충분한 라벨링	5	
기 타	12	패키지 파손, 유전자 변형, 온도조절 실패, 방사선
합 계	527	

(자료: 유럽 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 경고 시스템 RASFF 웹사이트)

- 따라서 독소, 농약, 중금속과 같은 생산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과 라벨링과 같은 수출 이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봄

■ 독소 및 중금속 관련 규정

- 유럽연합은 EC 1881/2006을 통해 독성, 중독성을 지니거나 체내에 축적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독소 및 중금속에 대해 식품 종류별로 최대 허용량을 설정해 놓고 있음
- 따라서 아래 과일별로 독소 및 중금속 최대 허용량을 정리해 놓은 표를 참고, 이와 같은 이유로 통관거부를 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독소 및 중금속 최대 허용량 >

코드	식품명	최대허용량 (/kg)		
2.1	Aflatoxins	B1	B1, B2, G1, G2 합계	M1
2.1.1.	땅콩 및 기타 오일 제조용 씨	8.0	15.0	-
2.1.2.	가공전 아몬드, 피스타치오, 살구	12.0	15.0	-
2.1.3.	가공전 헤이즐넛, 브라질 넛	8.0	15.0	-
2.1.4.	가공전 기타 견과류	5.0	10.0	-
2.1.5.	땅콩 및 일반 섭취용 기타 오일 제조용 씨	2.0	4.0	-
2.1.6.	즉시 섭취가능한 아몬드, 피스타치오, 살구	8.0	10.0	-
2.1.7.	즉시 섭취 가능한 헤이즐넛, 브라질넛	5.0	10.0	-
2.1.8.	즉시 섭취 가능한 기타 견과류	2.0	4.0	-
2.1.9.	가공전 건조 과일	5.0	10.0	-
2.1.10.	즉시 섭취 가능한 건조 과일	2.0	4.0	-
3.1	납	Maximum levels (mg/kg wet weight)		
3.1.12	과일 (베리 및 작은 과일 제외)	0.10		
3.1.13	베리 및 작은 과일	0.20		
3.2	카드뮴			
3.2.15	야채 및 과일	0.050		
3.4	주석			
3.4.1.	캔에 든 식품 (음료수 제외)	200.0		

(자료: http://ec.europa.eu/food/food/chemicalsafety/contaminants/index_en.htm)

■ 농약 관련 규정

- 현재 독일에서 농약 잔여량 허용치를 정해 놓고 있는 농약의 수는 무려 400여 가지에 달하고 있어 제품별, 농약별 농약 잔여량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가능함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과일과 앞에서 통관거부된 사례에서 적발 수가 많은 농약을 중심으로 농약 잔여량에 대해 살펴보고 함

< 과일별 농약별 허용 잔여량 >

(단위: mg/kg)

구 분	Diazinon (F)	Dimethoate	Ethion
1. 신선 또는 냉동 과일 및 견과류			
(i) Citrus fruit	0,01*	0,02*	0,01*
Grapefruit (Shaddocks, pomelos, sweeties, tangelo (except mineola), ugli and other hybrids)	0,01*	0,02*	0,01*
Oranges (Bergamot, bitter orange, chinotto and other hybrids)	0,01*	0,02*	0,01*
Lemons (Citron, lemon)	0,01*	0,02*	0,01*
Limes	0,01*	0,02*	0,01*
Mandarins (Clementine, tangerine, mineola and other hybrids)	0,01*	0,02*	0,01*
기 타	0,01*	0,02*	0,01*
(ii) 견과류		0,05*	0,01*
Almonds	0,05	0,05*	0,01*
Brazil nuts	0,01*	0,05*	0,01*
Cashew nuts	0,01*	0,05*	0,01*
Chestnuts	0,01*	0,05*	0,01*
Coconuts	0,01*	0,05*	0,01*
Hazelnuts (Filbert)	0,01*	0,05*	0,01*
Macadamia	0,01*	0,05*	0,01*
Pecans	0,01*	0,05*	0,01*
Pine nuts	0,01*	0,05*	0,01*
Pistachios	0,01*	0,05*	0,01*
Walnuts	0,01*	0,05*	0,01*

기 타	0,01*	0,05*	0,01*
(iii) Pome fruit	0,01*	0,02*	
Apples (Crab apple)	0,01*	0,02*	0,01*
Pears (Oriental pear)	0,01*	0,02*	0,01*
Quinces	0,01*	0,02*	0,01*
Medlar	0,01*	0,02*	0,01*
Loquat	0,01*	0,02*	0,5
기 타	0,01*	0,02*	0,01*
(iv) Stone fruit	0,01*		0,01*
Apricots	0,01*	0,02*	0,01*
Cherries (sweet cherries, sour cherries)	0,01*	0,2 (ft)	0,01*
Peaches (Nectarines and similar hybrids)	0,01*	0,02*	0,01*
Plums (Damson, greengage, mirabelle, sloe)	0,01*	0,02*	0,01*
기 타	0,01*	0,02*	0,01*
(v) Berries & small fruit		0,02*	
(a) Table and wine grapes	0,01*	0,02*	0,01*
Table grapes	0,01*	0,02*	0,01*
Wine grapes	0,01*	0,02*	0,01*
(b) Strawberries	0,01*	0,02*	0,01*
(c) Cane fruit	0,01*	0,02*	0,01*
Blackberries	0,01*	0,02*	0,01*
Dewberries (Loganberries, boysenberries, and cloudberrries)	0,01*	0,02*	0,01*
Raspberries (Wineberries, arctic bramble/raspberry, (Rubus arcticus), nectar raspberries (Rubus arcticus x idaeus))	0,01*	0,02*	0,01*
기 타	0,01*	0,02*	0,01*
(d) 기 타 small fruit & berries		0,02*	
Blueberries (Bilberries)	0,01*	0,02*	0,01*
Cranberries (Cowberries (red bilberries))	0,2	0,02*	0,01*
Currants (red, black and white)	0,01*	0,02*	0,01*
Gooseberries (hybrids with other ribes species 포함)	0,01*	0,02*	0,01*
Rose hips	0,01*	0,02*	0,1
Mulberries (arbutus berry)	0,01*	0,02*	0,1
Azarole (mediteranean medlar) (Kiwiberry	0,01*	0,02*	0,1

(Actinidia arguta))			
Elderberries (Black chokeberry (appleberry), mountain ash, buckthorn (sea sallowthorn), hawthorn, service berries, and other treeberries)	0,01*	0,02*	0,01*
기 타	0,01*	0,02*	0,01*
(vi) Miscellaneous fruit			
(a) Edible peel	0,01*		
Dates	0,01*	0,02*	0,01*
Figs	0,01*	0,02*	0,01*
Table olives	0,01*	2	0,01*
Kumquats (Marumi kumquats, nagami kumquats, limequats (Citrus aurantifolia x Fortunella spp.))	0,01*	0,02*	0,01*
Carambola (Bilimbi)	0,01*	0,02*	0,1
Persimmon	0,01*	0,02*	0,01*
Jambolan (java plum) (Java apple (water apple), pommerac, rose apple, Brazilian cherry Surinam cherry (grumichama Eugenia uniflora),)	0,01*	0,02*	0,1
기 타	0,01*	0,02*	0,01*
(b) Inedible peel, small	0,01*	0,02*	
Kiwi	0,01*	0,02*	0,01*
Lychee (Litchi) (Pulasan, rambutan (hairy litchi), mangosteen)	0,01*	0,02*	0,01*
Passion fruit	0,01*	0,02*	0,01*
Prickly pear (cactus fruit)	0,01*	0,02*	0,1
Star apple	0,01*	0,02*	0,1
American persimmon (Virginia kaki) (Black sapote, white sapote, green sapote, canistel (yellow sapote), and mammey sapote)	0,01*	0,02*	0,1
기 타	0,01*	0,02*	0,01*
(c) Inedible peel, large		0,02*	
Avocados	0,01*	0,02*	0,01*
Bananas (Dwarf banana, plantain, apple banana)	0,01*	0,02*	0,01*
Mangoes	0,01*	0,02*	0,01*
Papaya	0,01*	0,02*	0,01*
Pomegranate	0,01*	0,02*	0,01*
Cherimoya (Custard apple, sugar apple	0,01*	0,02*	0,1

(sweetsop), llama and other medium sized Annonaceae)			
Guava (Red pitaya or dragon fruit (Hylocereus undatus))	0,01*	0,02*	0,1
Pineapples	0,3	0,02*	0,01*
Bread fruit (Jackfruit)	0,01*	0,02*	0,1
Durian	0,01*	0,02*	0,1
Soursop (guanabana)	0,01*	0,02*	0,1
기 타	0,01*	0,02*	0,01*

주: 유럽연합에서는 dimethoate와 omethoate를 통합하여 dimethoate라고 칭함
(자료: http://ec.europa.eu/sanco_pesticides/public/index.cfm?event=substance.resultat&s=1)

■ FTA 체결 전후 관세비교

- 과일의 경우, 과일 품목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품목별로 관세 철폐시기를 정리하면 배가 관세 즉시 철폐 혜택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관세 축소 적용 후, 철폐되기 때문에 배 외에는 즉각적인 관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움

<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시기 >

CN코드	품목명	철폐시기
08082050	신선 배	즉시 철폐
08052010	신선 또는 건조 클레멘타인 (clementines)	FTA 체결 15년이 되는 첫날
08052050	신선 또는 건조 만다린 (mandarins)	FTA 체결 15년이 되는 첫날
08052070	신선 또는 건조 탠저린 (tangerines)	FTA 체결 15년이 되는 첫날
08061010	신선 테이블 포도 (table grapes)	FTA 체결 17년이 되는 첫날
08081080	신선 사과 (사이다용 사과 제외)	FTA 체결 10/20년이 되는 첫날
08091000	신선 살구 (apricots)	FTA 체결 7년이 되는 첫날
08093010	신선 증도 복숭아 (nectarines)	FTA 체결 10년이 되는 첫날
08093090	신선 복숭아 (peaches)	FTA 체결 10년이 되는 첫날
08094005	신선 자두 (plums)	FTA 체결 10년이 되는 첫날

주: 후지 사과만 FTA 체결 20년이 되는 첫날 관세 철폐 적용
(자료: 유럽연합)

- 한국 배가 상당히 고가에 수입되고 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산 배에 무관세 적용은 수입가격 하락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원가 자체가 높아 가격 하락 폭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라벨링

- 일반 제품의 라벨의 의무표기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음
 - 제품이름
 - 성분 및 성분함량 또는 성분 카테고리: 함량이 높은 순으로 표기, 성분 카테고리 및 특정 성분 순으로 표기
 - 알레르기 유발 성분
 - 유효기간 및 보관방법
 - 제조회사 이름 및 주소 또는 유럽 연합 내 수입/판매업자
 - Net quantity
 - 영양성분
 - 원산지
- 신선 과일의 경우, 위의 의무표기 사항 중 성분 및 성분함량은 예외적으로 적지 않아도 됨

6. 한국산 수출확대 방안

■ 수출과일의 다양화

- 현재 독일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국산 과일은 사과 및 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량의 기타 과일, 견과류로 제품이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데이터모니터에서는 독일 과일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틈새시장을 찾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독일에서 생산량이 적거나 생산하지 않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과일 및 견과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제품을 발굴,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독일의 기존 과일과 다른 외관과 맛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참외, 유자 등을 중심으로 수출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

■ 유럽 유기농 인증 추진

- 독일의 신선 과일 유기농 시장은 다른 유럽에 비해 시장규모가 크고,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따라서 유럽의 유기농 인증을 추진하여 제품의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임
- 또한 독일의 유통업체들은 과일 입점시 농약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기농 인증이 현지 주류 유통업체 입점 상담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대형 중간 공급업체의 공략

- 기존 한국산 과일들은 대부분 한국계 수입업체들을 통해 수입되고 있으나 수입물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슈퍼마켓 체인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대형 중간 공급업체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 대형 중간 공급업체들은 제품을 수입하여 2개 이상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대형 중간 공급업체들에 직접 제품을 수출하여 한국 과일을 판매하는 소매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함

■ 박람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 수입 및 공급업체를 발굴할 수 있는 독일의 식음료 관련 박람회로는 매년 독일 Cologne에서 열리는 Anuga FoodTec가 있음
- 또한 유럽의 대표적인 과일 관련 박람회로는 'Fruit Logistica'가 있으며 2012년에는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개최될 예정임

구 분	Anuga FoodTec 2012	Fruit Logistica
개최시기	2012년 3월 27-30일	2012년 2월 08-10일
장 소	독일 cologne exhibition centre	독일 베를린 Messe
관련정보	www.anugafoodtec.com	http://www1.messe-berlin.de/vip8_1/website/Internet/Internet/www.fruitlogistica/englisch/index.html

■ 관련 산업잡지를 통한 홍보

-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수입 또는 공급, 생산업체들은 관련 산업잡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의 우수성 등을 홍보하고 있음
- 유럽의 기존 과일과 다른 특징을 띠고 있는 과일들의 경우는 이러한 잡지에 광고를 함으로써 관심 있는 수입업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독일에 위치한 이러한 대표적인 산업잡지로는 'Fruchthandel' 이 있음
- 이 Fruchthandel는 잡지구독 외에도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업체들이 잡지 광고와 더불어 온라인 광고도 진행하고 있음

< Fruchthandel 잡지 및 온라인 광고 >





THIS WEEK IN FH-MAGAZINE



Hier klicken!

EINZELHANDEL | RETAIL

- Gurken nicht lange kalt lagern
- Makro und Metro Paketen planen Zusammenschluss
- Giftige Bananensapine hat sich eingestellt
- Handelsmarken: Gut für Handel und Verbraucher

FH-NEWSNET

TRANSLATE THIS PAGE

Latest | Archive



13.07.2011
Peru: Langerer Vermarktungszeitraum für Trauben durch Neupflanzungen



Die in den letzten Jahren stark gewachsenen Anbauflächen für Trauben in Peru sowie ein größeres Sortenspektrum werden zu einer deutlichen Ausweitung des Vermarktungszeitraums führen.

[more](#)

Search NEWSNET



SUBSCRIBE TO FH-NEWSMAIL

그리스 과일
온라인 광고